

# 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시장 코멘트 | 2024. 11. 25

## 주간 마켓 스펙트럼: 테마와 루머에 취약해진 한국 증시

투자전략팀 |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 sh.hwang@ls-sec.co.kr

트럼프 정책과 금리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잔존한 가운데 러-우 전쟁 리스크도 가세하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일본, 프랑스 등 부진.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행보에 급락. 반면 미 증시는 주 후반 실적발표와 연말 소비시즌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해주며 상승 마감에 성공

### 코스피 좋았으나 조선을 제외하면 지속성은 아직

한국 증시는 섹터 전반에 걸쳐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출현. 오랜 부진을 겪고 있던 에너지업종은 산업부의 '중장기 원전 로드맵' 초안 확정소식에 **비에이치아이(+28.9%, 1W)** 등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견인. 철강, IT가전, 화학 등은 트럼프 2기 파해업종으로 급락했던 것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에 성공. 건강관리와 비철/목재는 주도주였던 **알테오젠(-33.3%)**과 **고려아연(-8.4%)**이 내러티브 속 급락. WI26 업종 중 조선 업종만이 3주연속 모멘텀을 유지한 점은 글로벌한 불확실성의 시기에서 한국 증시의 취약점을 노출

### 레이덤, 통화정책, 전쟁, 등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환경

현재 트럼프 내각 구성은 마무리 단계. 그러나 트럼프 취임은 1월25일이며 관세와 법인세의 강도가 정해지는 것은 그 이후. 더해 12월 FOMC는 동결과 25bp인하 확률이 5:5인 상황. 푸틴은 22일 신형 탄도 미사일의 테스트를 지속할 것임을 선언.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3주간 급격한 상승과 되돌림이 반복. 고금리와 지정학적 텐션이 미래의 기대감에서 현실로의 복귀를 재촉했기 때문. 변수들에 대한 경계심리가 고조된 환경이기에 당장은 지수 방향성보다 관련 테마와 뉴스에 의한 트레이드에 집중할 필요

### 이미 테마와 루머에 취약해진 증시, 안전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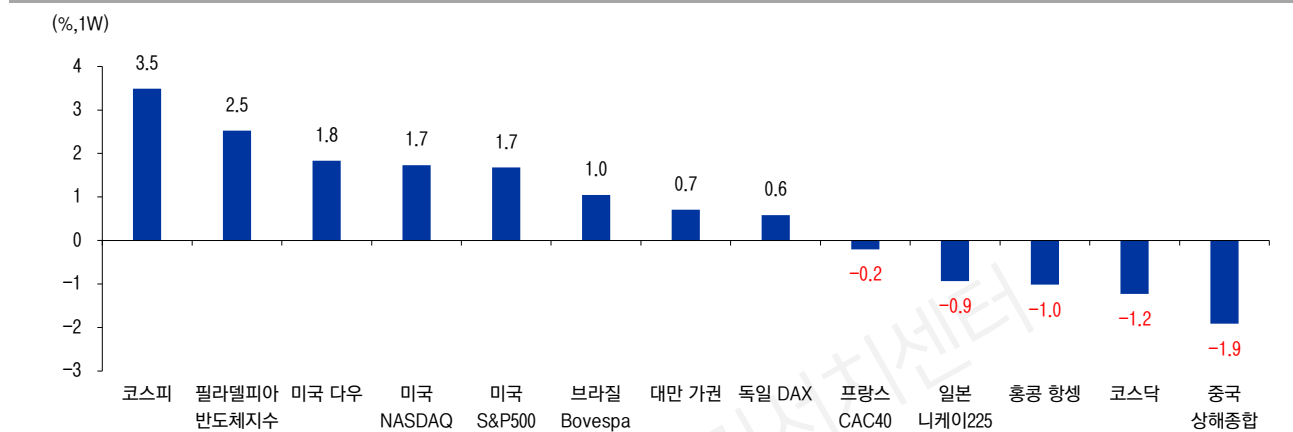
러-우 전쟁이 격화되며 재건 테마는 11월 들어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 바이오 주도주였던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20.4%)**도 악재성 루머와 미대선 테마 영향에 출렁. **LG엔솔(+9.1%)**, **삼성SDI(+9.1%)**는 트럼프 정책/머스크/스페이스X/리튬 등 여러 테마들의 복합적 영향권 아래 등락. DART 기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 건수 추이를 보면 '19년부터 꾸준한 상승세. '24년은 11/22기준 270건으로 '23년(258건)을 이미 초과. 테마와 루머의 파위가 강해진 시점임을 확인 가능

테마/이벤트 플레이를 고려한다면 이미 연중 한차례 부진했던 종목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코스피100 기준 YTD 수익률 하위 20개 종목 중 급주 하락마감한 기업은 위기설에 출렁이는 **롯데케미칼(-9.5%)** 뿐. **NAVER(+0.0%)**는 최근 오랜 부진을 깨고 성공적인 AI산업 편승이 부각되며 상승세. **카카오(+5.9%)**도 계열사의 주가 부양 노력과 저가 매수세에 간만의 상승. 정부와 개인들이 예민한 시기, 그간 부진했던 대형 종목들의 주가 부양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WI26 섹터 별 주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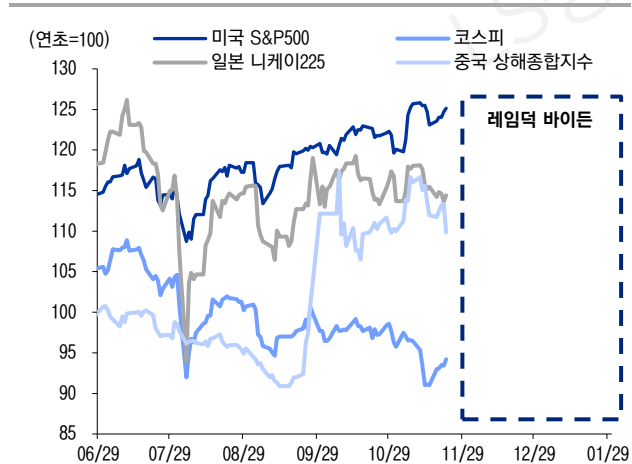
	1W	2W	3W
코스피	3.5	-5.6	0.7
코스닥	-1.2	-7.8	2.0
에너지	10.4	-7.8	-5.8
보험	9.3	-5.2	0.1
철강	7.6	-12.7	-3.7
IT가전	7.1	-11.6	-5.4
은행	6.1	-4.0	2.2
유틸리티	5.8	-0.2	-0.1
통신서비스	5.5	0.0	-3.6
화학	5.4	-13.6	-5.1
자동차	4.6	-0.6	-2.2
조선	4.3	2.6	14.0
미디어,교육	4.3	-0.5	3.3
반도체	2.9	-8.1	1.1
소프트웨어	2.9	-0.8	0.4
증권	2.7	-4.0	0.8
호텔,레저서비스	2.4	-3.8	-0.1
필수소비재	2.4	-3.3	3.6
운송	1.9	0.8	-1.1
IT하드웨어	1.9	-9.9	-0.5
건설,건축관련	1.9	-4.7	2.9
소매(유통)	1.1	-8.1	-1.9
디스플레이	0.9	-7.0	-1.1
상사,자본재	0.3	-3.7	4.7
화장품,의류,완구	0.1	-6.4	0.5
기계	0.0	-2.9	8.3
건강관리	-4.6	-6.0	2.9
비철,목재등	-5.6	-8.9	8.9

그림1 주요국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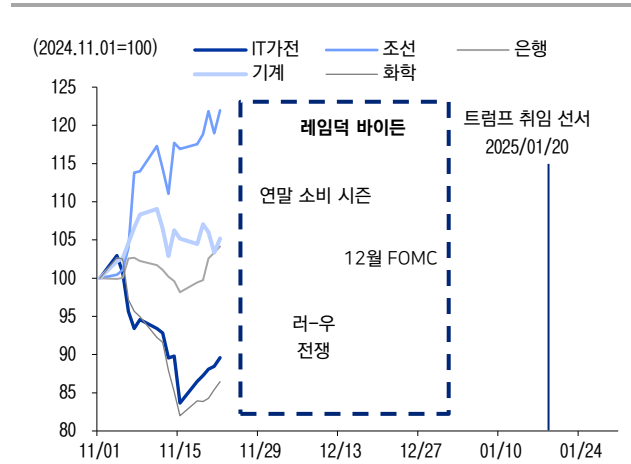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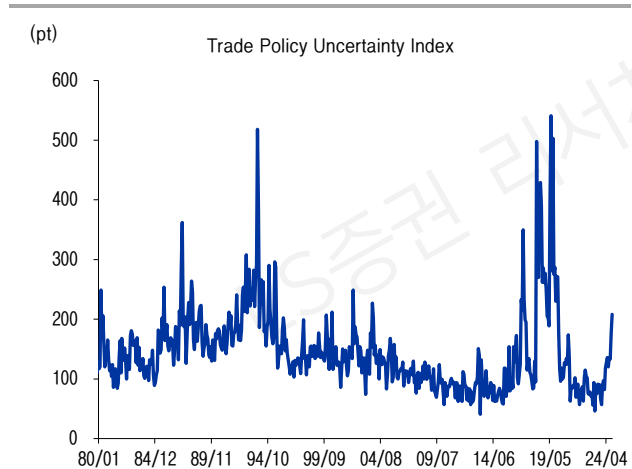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트럼프 트레이드, 너무 빠르게 반영된건 아닐까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내각만 발표됐을 뿐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은 잔존



자료: Matteo Iacoviello,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12월 FOMC의 결과도 5:5 인 상황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2024-12-18			0.0%	0.0%	0.0%	0.0%	52.7%	47.3%
2025-01-29	0.0%	0.0%	0.0%	0.0%	0.0%	11.3%	51.6%	37.2%
2025-03-19	0.0%	0.0%	0.0%	0.0%	6.1%	33.0%	43.8%	17.1%
2025-05-07	0.0%	0.0%	0.0%	1.5%	12.7%	35.7%	37.3%	12.9%
2025-06-18	0.0%	0.0%	0.6%	5.8%	21.6%	36.3%	27.8%	7.9%
2025-07-30	0.0%	0.1%	1.7%	9.1%	24.6%	34.5%	23.7%	6.3%
2025-09-17	0.0%	0.5%	3.4%	12.7%	26.9%	32.0%	19.7%	4.8%
2025-10-29	0.1%	0.9%	4.8%	14.8%	27.7%	30.2%	17.4%	4.1%
2025-12-10	0.2%	1.5%	6.3%	16.7%	28.1%	28.3%	15.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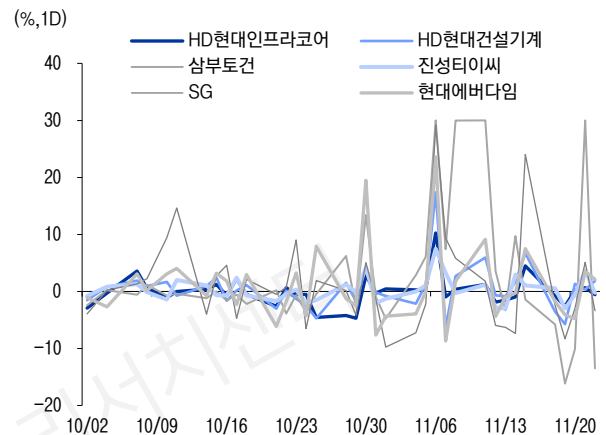
자료: CM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푸틴 “신형 탄도 미사일 계속 실험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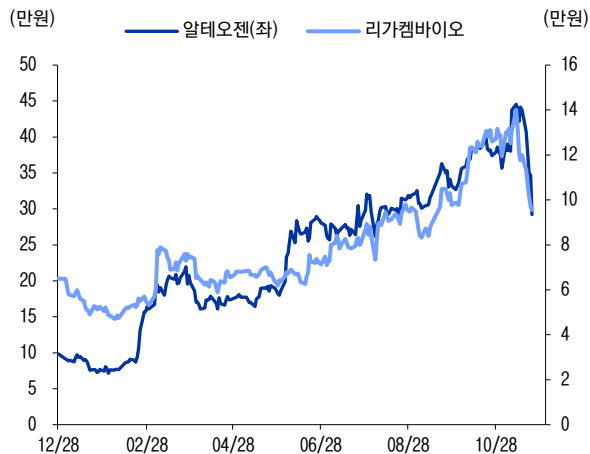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다시 시작된 우크라 재건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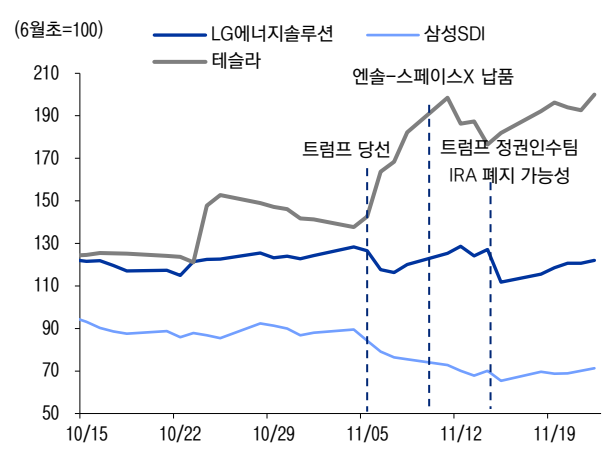
자료: Qu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루머에 취약한 환경인 바이오 주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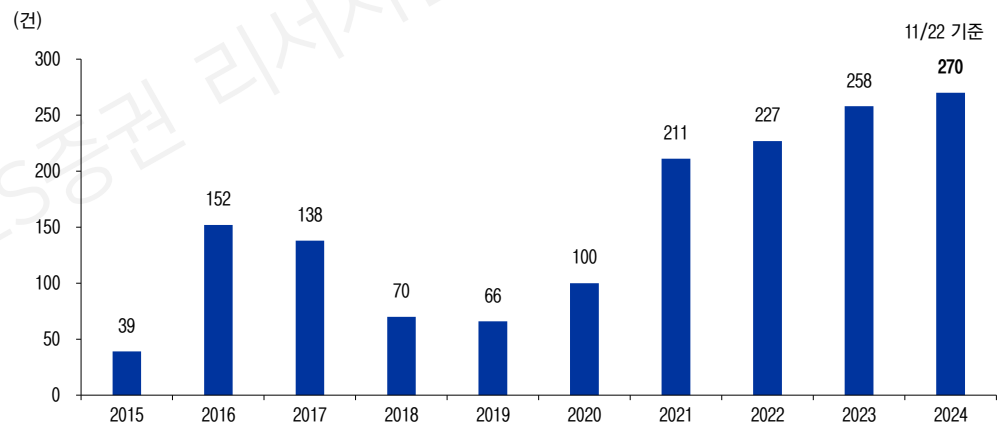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트럼프, 머스크, EV, 우주 테마가 복합적으로 엮인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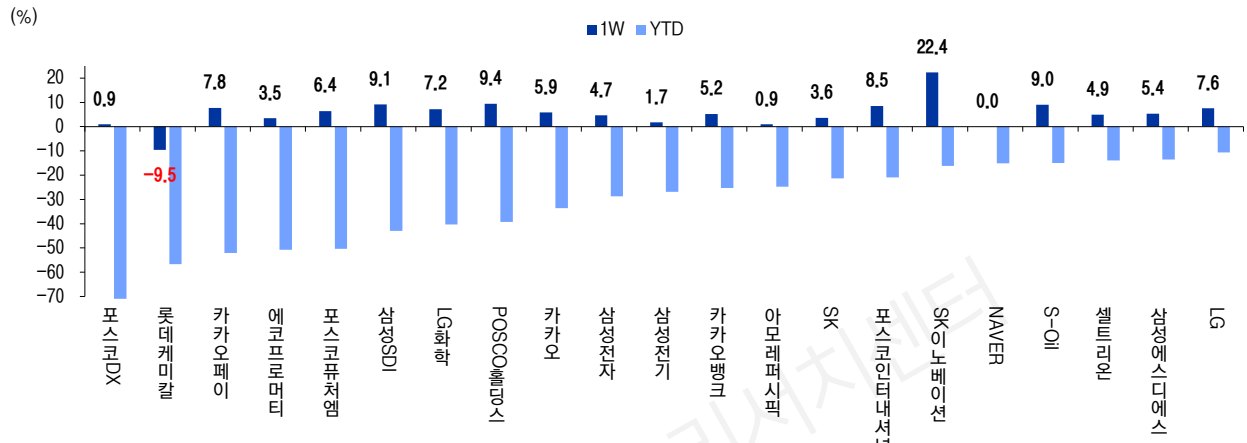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DART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 건수 추이



자료: DART,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코스피 100, YTD 기준 수익률 하위 20개 종목



자료: Qu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